

한일정상회담 (09.09.23) 주요 내용

2009.10.20

G20 회담차 미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뉴욕서 일본의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신임총리와 첫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. 양국은 한일 과거사를 비롯해 여러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.

□ 한일 정상회담 개최

- 이명박 대통령과 하토야마 유키오(鳩山由紀夫) 일본 총리가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짐 (2009.09.23)
 - 두 정상은 유엔 기후변화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뉴욕에서 처음 만나 회담을 갖고 인사말부터 역사인식과 관련해 ‘짧지만 의미있는’ 대화 나눔
- 키워드
 - 신아시아외교, 미래지향적 관계

□ 협의 내용

- 경제문제를 비롯해 양국간 각종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으며, 특히 한일 과거사에 대한 기본인식 공유
 - 회담에 앞서 하토야마 총리는 먼저 “한국은 일본과 가장 가깝고 중요한 나라”라면서 “양국 관계가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다”고 전달
 - 이명박 대통령은 “양국은 서로 신뢰하고 가장 가까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”면서 “하토야마 총리가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하고 있으며 나도 그럴 준비가 돼 있다”고 강조

- 기후변화, 핵문제 등 글로벌 이슈와 아시아문제 등 다양한 과제에 대한 협력 합의
 - 핵문제에 대해 하토야마 총리는 “무슨 일이 있어도 저지해야 한다”면서 국제공조 필요성 강조, 이명박 대통령은 6자회담 참가국의 강한 결속력을 강조하자 공감한다고 호응
- 하토야마 총리는 2016년 하계올림픽의 도쿄(東京) 유치를 지원해 달라고 당부

□ 참석자

- 한국측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, 사공일 G20 기획조정위원장, 박인국 주 유엔대사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, 이동관 홍보수석 등이, 일본측에서 오카다 가쓰야(岡田克也) 외상, 마쓰노 요리히사(松野頼久) 관방장관 등이 배석

□ 성과

- 2010 G20 한국 개최 결정에 의한 외교적 결실 맺음
 - 위기극복 이후 세계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미래성장 모델 발굴의 중요성 강조
 -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가교 역할을 세계에 어필

<참고자료>

외교통상부(www.mofat.go.kr)

‘뉴욕 한일정상회담 “북핵 등 글로벌 이슈 공조”’ (서울경제 09.09.24), ‘韓·日정상, 뉴욕서 첫 회담…과거사 인식 공유(연합뉴스 09.09.24) 등 국내 주요언론보도 내용 종합